

나주시 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군통합 30년 기념행사

다음달 1일 나주문화예술회관
30년 변화와 성과 공유하고
미래 비전 선포로 도약 발판 마련

나주시가 지방자치 시행과 시군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나주시는 다음 달 1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 걸어온 30년, 나주의 내일을 있다’를 주제로 지방자치·시군통합 3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과 나주시와 나주군 통합 이후 지난 30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3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본행사는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이뤄낸 시정 성과 영상 소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 표창, 미래비전 시민참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30년 비전 선포’ 시간에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3대 핵심 과제인 제2차 공공기관 나주혁신도시 이전, 조강력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28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주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기념 사진기록전’이 열려 시민과 함께한 나주의 30년 발자취를 사진으로 되짚는다.

또 행정구역 변화, 인구와 예산, 경제규모 변화 지표, 주요 정책 성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변화 체험 코너’와 기념 포토존도 함께 운영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이자 시군통합은 나주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었다”라며 “이번 30주년 기념행사가 시민과 함께한 변화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미래 3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23일 담양 군청을 찾은 이탈리아 국제슬로시티연맹 관계자들이 정철원 군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담양군 제공>

이탈리아 국제슬로시티연맹 담양 방문 슬로시티간 교류 강화·관광 정책 공유

죽녹원·창평 삼지내 마을 찾아

이탈리아 국제슬로시티연맹(Cittaslow International)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인증 지역인 담양군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슬로시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슬로관광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지역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 문명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9년에는 군 전역이 국제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네 차례 재인증을 받으며 세계적인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국 관계자와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담양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담양의 슬로시티 철학과 운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서 담양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방문단은 이후 담양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이자 슬로시티 정신을 담고 있는 죽녹원과 전통과 삶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창평 삼지내 마을을 방문해 담양 슬로시티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방문이 세계적인 슬로관광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슬로관광 거점도시로서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 김밥 김’ 세계로...우크라이나에 16만 달러 규모 수출

박람회 잇단 참가 해외시장 개척

함평군이 16만 달러 규모 김밥 김을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 대동면의 수산물가공업체 맛나푸드가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16만 달러 규모 김밥 김 상차식을 진행했다.

함평군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국제식품박람회 ‘SIAL Paris 2024’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바이어와의 첫 상담을 시작한 이후 수개월간 협의를 이어온 끝에 성사된 성과다.

군은 2023년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6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 왔다.

프랑스 유통업체와 10만 달러 규모의 나비쌀 수출협약을 체결해 18톤의 수출을 성사시키는가 하



이상의 함평군수가 (주)맛나푸드의 김밥김 수출 상차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면 샤인머스켓, 도시락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에 수출하며 ‘글로벌 K-푸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현재 캄보디아와 러시아 바이어들과도 활발한 김 수출 상담이 진행 중이며 조

만간 상차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K? HC(Korean Food? Hampyeong County)’ 브랜드를 중심으로 함평 농특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아이들이 행복한 화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2029년 6월1일까지 인증
군청 현관에 현판 제막식

화순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갱신받았다.

화순군은 최근 군청 현관에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대변인, 아동참여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2020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았던 화순군은 그동안의 아동정책과 아동친화 공간 조성 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최종 인증 갱신을 확정했다.

화순군은 아동의 참여권 확대와 아동권리 교육, 아동친화공간 조성, 아동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아동청소년의회를 해마다 내실 있게 운영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아동



참여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제2기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2029년 6월 1일까지 4년이다.

화순군은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49개 사업으로 확대해 현장 중심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의 사회의 주체로 존중하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삼계부사관고 학생들 귀갓길 편의
장성군 운수업체와 버스 시간 조정

장성군의 적극행정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낳았다.

장성군은 삼계면 삼계부사관고 학생들의 귀갓길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시간을 조정하도록 운수업체 측과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숙형 학교인 삼계부사관고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50분 수업을 마치고 주말을 집에서 보내기 위해 학교를 나선다. 문제는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광주중앙버스터미널(유스퀘어)까지 가는 버스가 오후 3시 20분에야 출발한다는 데 있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선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장성군은 운수업체 ㈜광신고속 측과 버스 시간 조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다른 정류장 운행 시간까지 변경해야 해 어려움이 컸지만, 군의 꾸준한 설득으로 의견 일지에 이르렀다.

장성군의 제안을 수용한 ㈜광신고속은 매주 금요일 광주행 버스 시간을 오후 2시 10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 10분 앞당겼다. 지난 4월 18일 첫 시행 이후 매주 40~50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버스 시간을 조정해 준 ㈜광신고속에 감사하다”라며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경찰 여성 1인 근무 업소 범죄예방 활동

화순경찰은 지난 24일 여성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는 화순여성실업자지원회와 군민참여단과 함께 화순 읍내 여성 1인이 근무하는 마용실, 내일샵 등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날 활동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보안에 취약한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불안 요소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와 대응요

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창문 이중잠금장치와 도어락 지문방지필름 등 안심물품세트도 배부했다.

장성명 화순경찰서장은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등 관계적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유기농업으로 풍년새우 돌아왔다

친환경농업단지 수천마리 확인

장흥군은 지난 24일 장동면 북교리 일원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 수천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긴꼬리투구새우는 3억 년 전 고생대 시기 화석에서도 발견된 화석생물로 한때 지나친 농약 등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이 도입되면서 다시 나타나 청정지역에서만 종종 발견되고 있다.

물품이 투명해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풍년새우는 까만 눈과 빨간 긴꼬리가 특징이다. 긴꼬리투구새우와 함께 수습계의 다리와 긴꼬리로 논바닥을 휘저어 먹이를 먹고 잡초가 나지 못하게 하는 제초 역할을 한다. 풍년새우 및 긴꼬리투구새우가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민감하여 토양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친환경지표로 알려져 있다.

유기농업을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흙과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태 기반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례가 된 셈이다.

이번에 발견된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는 장동 정암마을에 사는 김재기 농가 외 유기농업으로 농사짓는 논에서 대량으로 확인됐다.

장동면의 좋은선택유기작목반은 70여ha 유기농업을 실천해 오면서 26년 넘게 우렁이 등 친환경



풍년새우.

경농법으로 쌀농사를 해 오고 있다.

좋은선택유기작목반 김재기 씨는 “이번 여러 군데 논에서 발견된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는 7~8년 전부터 발견되었다”며 “풍년새우가 보이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고동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은 “건강한 생태계의 반증”이라며 “이번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지속가능한 장흥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2004년부터 친환경우렁이와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등 약 1900ha 농지의 흙 살리기 농법을 통해 친환경 쌀, 표고버섯 등 유기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영화관 영화 두 번 보면 한 번은 덤

매월 첫째주 토요일 ‘2+1 이벤트’

강진군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영화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토요일 ‘영화 보는 날’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영화 보는 날’은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명절에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를 50% 할인하며, 팝콘·음료 세트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당일 현장 예매 시에만 적용되며, 강진군민 여부를 확인한 때에만 제공된다. 온라인 예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람을 원하는 군민은 반드시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강진군은 7월부터 ‘2+1 이벤트’를 통해 영화

관람 장려와 관객 참여 확대에도 나선다. 이 이벤트는 영화 2회 관람 시, 무료 영화 관람권 또는 매점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인 1일 1회만 적립 가능하며, 월 최대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무료 영화 관람권 및 매점 쿠폰은 당일 사용이 불가능하며,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무료 영화 관람권으로 관람한 티켓은 스탬프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 및 적립 이벤트는 강진군민 여러분께 더욱 실질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강진영화관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